

쿠팡 광주첨단물류센터 준공 약 1년, 지역 고객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5. 10. 13.

지난해 [쿠팡 광주첨단물류센터](#)가 문을 연 이후, 광주 지역 고객들의 일상이 더 편해지고 있습니다. 육아 중인 부모, 자영업자, 1인 가구까지. ‘쿠팡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할 수 없다’는 광주 고객들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호남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환영과 함께 지난해 오픈한 광주 첨단 물류센터. 이로 인해 광주 지역에 더욱 빠르고 편리한 배송이 가능해졌는데요. 과연 광주 고객들의 일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전라남도에서 육아 중인 부부 최유라, 김찬일 고객님

“저희는 몇 년 전부터 거의 매일 쿠팡을 썼는데, 요즘 더 빨라졌더라고요. 아이 키우는데 쿠팡 없이는 못 살아요.

밤에 이유식, 기저귀 떨어지면 아찔한데 쿠팡은 주문하고 눈 뜨면 문 앞에 딱 있으니 얼마나 편한데요. 아이 물건은 꼼꼼히 따져보

게 되는데, 곰곰이나 탐사 같은 CPLB 제품은 믿고 쓸 수 있어요. 기저귀부터 식재료까지 전부 CPLB로만 사요.” - 최유라 고객님



“특히 곰곰 해남 고구마는 저희 아이도 좋아하는데, 가성비도 좋고 우리 전남 지역 제품이라 지역 농가를 살린다는 느낌도 들어요.”
- 김찬일 고객님



“무엇보다 장 보는 시간 아껴서 아이랑 더 시간 보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쿠팡이 우리 가정 행복 지킴이입니다!” - 최유라, 김찬일 고객님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원준 고객님

“전에는 도매로 대량 구매하다 보니 버려지는 재료도 많았고, 손해도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쿠팡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주문하면 되니까 손해가 크게 줄었어요.

이른 새벽이든 밤늦게 든 언제든지 장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쿠팡이 광주 골목상권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 이원준 고객님



혼자 생활하며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는 정송희 고객님

“저는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는데요, 퇴근하면 지쳐서 해먹을 힘이 없어요. 시켜 먹으려고 앱을 켜면 최소 배달비 때문에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 쿠팡이츠는 와우 회원이면 1인분도 무료 배송이라 진짜 꿀이에요. 이젠 쿠팡이츠 없는 저녁은 상상도 못 하겠어요.” - 정송희 고객님

바쁜 일상 속, 쿠팡은 고객들에게 조금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선물합니다. 더 많은 고객이 더 나은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쿠팡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